

[2017 체인지온@공룡] 미래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7 체인지온@공룡 "미래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후 1시~ 5시**
- 장소 : 동부창고 34 다목적홀 (옛 연초제조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01-32)



- 주최/주관 :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 파트너 : 협동조합 몽클
- 후원 : 다음세대재단, 카카오
- 사이트 : <https://www.facebook.com/mediagongryong/> (비영리미디어컨퍼런스 체인지온 at 공룡)
- 문의 : 043-266-4055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 참가비 : 1만원 (3인 이상 단체 참여일 경우, 2만원)
참가자에게는 체인지온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참가대상 및 인원 : 50명 내외
 - 미디어/문화예술 활동가 및 독립영화 감독
 - 사회단체 활동가 및 노동조합 활동가
 -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미디어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 비영리 기관 및 단체, 공동체 활동가

○ **행사소개** : [체인지온@]은 비영리 영역에서 미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사회변화를 위한 생각과 정보 등을 나누고자 기획된 지역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다. [체인지온@]은 다음세대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ChangeON>의 의미에 동참하는 지역 파트너 기관이 직접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고, 다음세대재단이 카카오와 함께 지원금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별도의 지역 단위 행사로서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은 지난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지역 파트너 단체로 함께 해왔고, 올해 5회째 행사를 맞고 있다.

○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소개** : '공부해서 용 되자'의 줄인 말인 공룡. 청주시 사직동이라는 동네에 살면서 서로 하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을 찾고, 배우고, 가르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생활교육공동체이다. 그래서 같이 농사도 짓고, 밥도 해 먹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걸 만들기도 한다. 미디어 활동과 관련하여 공동체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노동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만나고 있으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한다.

2. 기획의도 및 주요 내용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이하 공룡)은 청주시 사직동에 위치한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공룡의 활동가들은 각자의 매체를 가지고 연대 및 네트워크 활동, 매체 제작,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룡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는 책과 다큐멘터리, 음악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공룡이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매체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기획/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각각의 매체를 활용해서 지역 및 전국적인 사안에 연대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룡이 활동한 지 햇수로 8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가 제작한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닿고 있는지(매체 제작 이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는 지역/마을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노동'이라는 주제로 만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지역과 일상 공간에서 생활교육공동체로서 활동의 의미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 매체를 가지고 참여하는 다양한 연대 및 네트워크 활동에서 수동적인 연대가 아닌 우리 기획을 가진 우리다운 연대의 방식은 무엇일지에 대해(투쟁의 현장에 힘이 되는 미디어이자 동시에 연대의 주체인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현장 활동의 구성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2017 체인지온@공룡]은 '미래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1개의 주제강연 그리고 미디어 제작/교육/연대 및 네트워크 활동 세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공룡의 사례 발표(총 3개), 공룡이 지향하는 활동에 상상력을 더해 줄 사례에 대한 발표(총 3개) 등 6개의 사례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를 가지고 혹은 미디어를 통해 공룡이 하는 활동은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를 되짚어 보며, 공룡이 만들고자 하는 변화에 대해, 변화의 방향과 변화를 가능하게 할 상상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주제 강연) 미래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 남미로부터의 교훈

강연자/ 박재은 (미디어 활동가)
진행 : 이혜린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미디어가 '사업'이 아닌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를 선언하는 급진적 미디어 개혁이 남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 역시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체인지온@공룡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 가운데서도 '대안 혹은 독립' 미디어가 어떻게 사회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운동을 통해 얻어낸 새로운 정치는 대안적인 미디어의 실천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중점을 두고 강연을 준비했다. 사회변화를 위한 미디어에 대한

공룡의 미디어 활동의 고민과 연계해서 사회변화를 둘러싼 대중운동과 미디어, 정치와 대안적인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와 정치, 정치와 미디어를 둘러싼 남미의 사례(시행착오를 포함)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더 상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사례 발표 01) 매체 제작 이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1. 공룡의 발표/ 매체 제작 이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연사 : 김설해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사회적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현상이 많은 만큼 이를 기록하고 알려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독립/대안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활동들 또한 곳곳에 있다. 공룡에서도 투쟁의 현장을 기록하고, 알려내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가 닿고 있을까? 우리의 영상에 담긴 사람들, 투쟁의 당사자들에게조차 우리가 만든 영상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공을 들여 살펴본 적은 없었다. 우리의 영상 제작이 온전한 미디어 활동이 되기 위해 누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중요하다. 하지만 제작 자체만으로도 버거운 조건에서 본다는 행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봐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만나야 할 것이며 영상에 담아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다시 대안적인 콘텐츠의 생산과 사회운동에 어떤 힘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

2. 일본 다큐멘터리 제작그룹 NDS의 지역 활동 사례/ 가마가사키, 권리를 찾기 위한 연대

연사 : 사토 레오, 가지이 히로시 (NDS 다큐멘터리 제작그룹)

통역 : 이마마사 하지메

오사카 니시나리구 가마가사키의 다큐멘터리 제작단체인 NDS(나카다치초 다큐멘터리 스페이스). 가마가사키는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슬럼이다. 이 지역은 일용직 노동자, 홈리스,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겨울이 되면 하루에 다섯 명씩 사람이 죽어 나가는 곳이라고 한다. NDS는 가마가사키에 자리를 잡고 이들을 철거하려고 하는 오사카시와의 투쟁에 연대하며 이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제작뿐만 아니라 매해 여름과 겨울, 가마가사키 축제를 통해 가마가사키의 노숙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체인지온@공룡에는 NDS 활동가를 초청해 지역 주민이자, 활동가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와 지역 단위의 다큐멘터리 제작과 상영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사례 발표 02)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노동'을 주제로 사람들을 만나기

3. 공룡의 발표/ 반자본, 일상성, 공동체성 그리고 지역과 일상의 공간

연사 : 박영길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자본과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공룡은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생태/소수자 등에 대한 감수성을 기반으로 삶의 불안정성과 소외와 차별의 문제에 함께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주력했던 이야기는 '노동'이라는 주제다. 개인과 공동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복합적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불안정 노동의 문제에 우리 스스로 주목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각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들이 드러나는 일상으로서의 마을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반자본의 가치와 함께 살아가는 관계망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하지만 공룡이 추구하는 '반자본/일상성/공동체성'이라는 가치가 실제로 지역,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공부되고 실천되었을가에 대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 공룡이 상상하는 생활교육공동체, 일상의 공간을 통해 배운 것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 공룡은 이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는가. 공룡의 활동 중에서도 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시행착오의 경험, 새로운 실천에 대한 상상성에 대해 털어놓아 본다.

4. 서울노동광장 & 카페 봄봄의 지역 활동 사례/ 세상을 바꾸는 노동과 마을의 합체

연사 : 공군자 (카페 봄봄 매니저)

서울시 영등포에 위치한 카페봄봄. '세상을 바꾸는 노동과 마을의 합체'라고 소개하는 카페봄봄은 노동자 교육단체 서울노동광장에서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만든 카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출발한 카페봄봄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웃 나눔 밥상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카페 공간을 활용한 법률상담, 노동법 상담 등의 활동도 이뤄지고 있다. 지역에서 노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지역 주민들, 지역 노동자들과 같이 가는 호흡이 중요하다는 카페봄봄. 마을이라는 공간 안에서 '노동'이라는 열쇳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꿈이라는 카페봄봄의 경험과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자 한다.

카페 봄봄 웹사이트/ <http://www.cafebombom.net/>

카페 봄봄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C%B9%B4%ED%8E%98%EB%B4%84%EB%B4%84-19056621772096/>

사례 발표 03) 현장과 연대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활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5. 공통의 발표/ 현장과 연대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활동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연사 : 오재환 (생활교육공동체 공통)

"음악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저 소비되는 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을 품고서, 공통에서 공통과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든 노래들을 모아 음반을 만들고 있다. 올해는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성주/김찬'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되어 행사 기획과 전체 운영을 진행했다.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성주/김찬'이라는 제작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명백한 건 힘겹게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것에 맞서 싸우고 있는 투쟁 현장에 미디어로 연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활동가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다지기 위한 목표도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현장의 다급한 요구에 대응하는 일은 미디어 활동가들이 보람을 느끼는 만큼 지치게 하고, 미디어 활동가들의 고민과 욕구에 기반을 둔 활동은 현장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받지 못하거나 자칫하면 민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드는 고민은 다시 '투쟁의 현장과 연대하는 주체 모두에게 힘이 되는 활동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다양한 연대 및 네트워크 활동에서 수동적인 연대가 아닌 우리 기획을 가진 공통다운 연대의 방식은 무엇일까.

6. 노동예술지원센터 흥의 활동 사례/ 노동자와 예술가의 연결고리, 흥을 만드는 사람들

연사 : 이광혁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기획팀장)

노동이 더욱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였다. '노동예술지원센터 흥'은 노동자와 예술가들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상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협업을 통한 노동자들의 콘텐츠 생산 및 배포의 지원 활동, 노동계의 문화예술적 감수성 복원을 위한 일상 프로젝트 등 노동자와 예술가의 만남의 장을 만들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예술가가 노동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협업 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는 '노동예술지원센터 흥'은 어떤 흥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같은 혹은 또 다른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까, '노동이 더욱 빛나는 세상'을 바라는 그들과 함께 서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SupportForLaborArt/>

3. 행사 일정표

* 세부 일정은 행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일정	시간	세부 진행 내용
사전 행사	1시~1시10분 (10분)	참여자 접수, 안내, 기념품 증정
행사 소개	1시10분~20분 (10분)	행사 및 주제와 주요내용, 일정 소개
강연1	1시 20분~ 2시 10분 (50분)	섹션 1) 주제강연 : 미래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 미래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 남미로부터의 교훈 : 강연자/ 박재은 (미디어 활동가) ○ 질의응답 : 진행/ 이혜린 (생활교육공동체 공통)
휴식	2시 10분~20분	10분간 휴식
발표1	2시 20분~ 3시 20분 (60분)	섹션 2) 사례 발표 : 매체 제작 이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 공통 사례 : 연사/ 김설해 (생활교육공동체 공통) ○ 일본 다큐멘터리 제작 그룹 NDS의 지역 활동 사례 : 연사/ NDS 사토 레오 ○ 질의응답 : 진행/ 김설해 (생활교육공동체 공통)
휴식	3시 20분~30분	10분간 휴식
발표2	3시 30분~ 4시 10분 (40분)	섹션 3) 사례 발표 :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노동'을 주제로 사람들을 만나기 ○ 공통 사례 : 연사/ 박영길 (생활교육공동체 공통) ○ 서울노동광장 & 카페 봄봄의 활동 사례 : 연사/ 카페봄봄 공군자 ○ 질의응답 : 진행/ 박영길 (생활교육공동체 공통)
휴식	4시 10분~20분	10분간 휴식
발표3	4시 20분~ 5시 (40분)	섹션 3) 사례 발표 : 현장과 연대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활동에 대해 ○ 공통 사례 : 연사/ 오재환 (생활교육공동체 공통) ○ 노동예술지원센터 흥의 활동 사례 : 연사/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이광혁 ○ 질의응답 : 진행/ 오재환 (생활교육공동체 공통)
마무리	5시~ 5시 10분 (10분)	마무리 인사 및 뒤풀이 안내